

내년부터 전남 최초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오픈

여수중앙병원과 협약...6년 결실
평일 오후 11시·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 진료

여수시가 여수중앙병원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전남 최초로 '여수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운영에 나섰다. 여수시·시의회 민간이 뭉쳐 6년만에 이루어낸 결실로 평일 오후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 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장실에서는 여수시와 여수중앙병원 간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는 여수중앙병원은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 2024년부터 평일 저녁 11시, 주말(토·일)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들을 진료하고,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의사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공모 참여 요청 등 설득에 나섰지만, 그간 희망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도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 '소아청소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이의 유치를 위해 수차례 운영 병원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계 반응은 냉랭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야간 소아청소년 환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야간 진료시간을 연장할 경우 고액연봉의 의사 등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야간운영의 경우 주간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돼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시는, 올해 여수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방중소도시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로 위한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여수중앙병원과 협의에 나서 극적으로 협약에 이르렀다.

여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여수중앙



여수시가 여수중앙병원과 협약을 맺고 전남 최초로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을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병원은 지난 2021년 8월 둔덕2길 6-3번지에 지하 1층 지상8층, 95개(현재 204개) 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환자중심의 따뜻한 병원'을 목표로 내과와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통합치의학과 등 8과목에 대해 진료한다.

박기주 여수중앙병원 원장은 "현재 실

력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너무나 부족하고, 특히 나 지역(여수)사회에서의 의사구인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며 "계속 기다리기에는 환자의 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돼 우선 기존 본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제가(가정의학과) 직접 진료에 나설 생각이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 발돋움

관광진흥위원회 발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6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휴양도시 구축을 위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는 지난 8월 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 김종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광 기관·단체, 교수,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관광 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비롯한 관광자원·각종 관광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식과 부위원장 선출, 2024년 관광 주요사업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여수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여수에서 고향을 잇는 일레븐 브릿지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개통, 2026여수세계박람회 등 달라진 관광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 시책사업 발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김경오 파티쓰리(대표 김옥군)가 여수시 광림동 경로당에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600여만 원 상당의 빵을 후원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친환경농 농가 소득보전금 5억3000만원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소득보전금을 767명에 5억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보전' 금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1000㎡이상 경작하고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단가는 ha당 유기농은 120~200만원이고 무농약은 90~150만원으로 인증

단계 및 작물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되는 소득보전금은 유기농 인증 502농가에 3억 8000만원을, 무농약 인증 265농가에 1억5000만원으로 총 767농가에 5억3000만원이다.

지급조건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일 현재 남아 있는 농가는 현재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 후 갱신 및 인증내역 검증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농가별 계좌에 지급된다. 소득보전금 지급에 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발전상 수상

여수시가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1위'에 이어 '2023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본 평가에서 7년 연속 수상과

전남도 내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펼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평가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여수시, 인센티브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해 우수시군을 수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 '우수'지자체 선정보다 한 계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022년 결산기준 여수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1.5%로 전국 평균인 78.7%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이경기 기자



31일 향일암 일출제 연다 여수시, 일출광장서

전국 제일의 해돋이 장소인 향일암에서 오는 31일부터 2024년 1월1일까지 제 28회 여수향일암 일출제가 열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새 빛! 새 출발! 해를 품은 임포 향일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들에게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코자 한다.

31일 오후 11시 향일암 일출광장에서 개막행사를 비롯해 일몰·일출 감상과 LED 소원 촛불 밝히기, 향일암 종각의 제야의 종 타종 등의 프로그램과 소원지·소원패 달기, 행운 열쇠고리 만들기, 소원 엽서 보내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지역 대표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의 후원으로 신년 불꽃쇼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행사기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6개소 1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주자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울 신도로 △대울 평화테마존 △방죽포 해수욕장 △갯고을센터 △죽포삼거리 일대에 위치한다.

최근 안전한 행사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일암일출제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경식)와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약 300여명의 인력을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김경오파티쓰리, 광림동 경로당에 빵 후원

여수 김경오 파티쓰리가 광림동 경로당에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600여만 원 상당의 빵을 후원하며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경오 파티쓰리는 매주 목요일 광림동 복지팀이 매장을 방문하면 미리 준비해놓은 다양한 종류의 빵을 기부, 복지팀은 매주 3~4개소의 경로당에 빵을 전달했다.

김옥군 김경오 파티쓰리 대표는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인 만큼 어르신들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종인 광림동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여 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동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